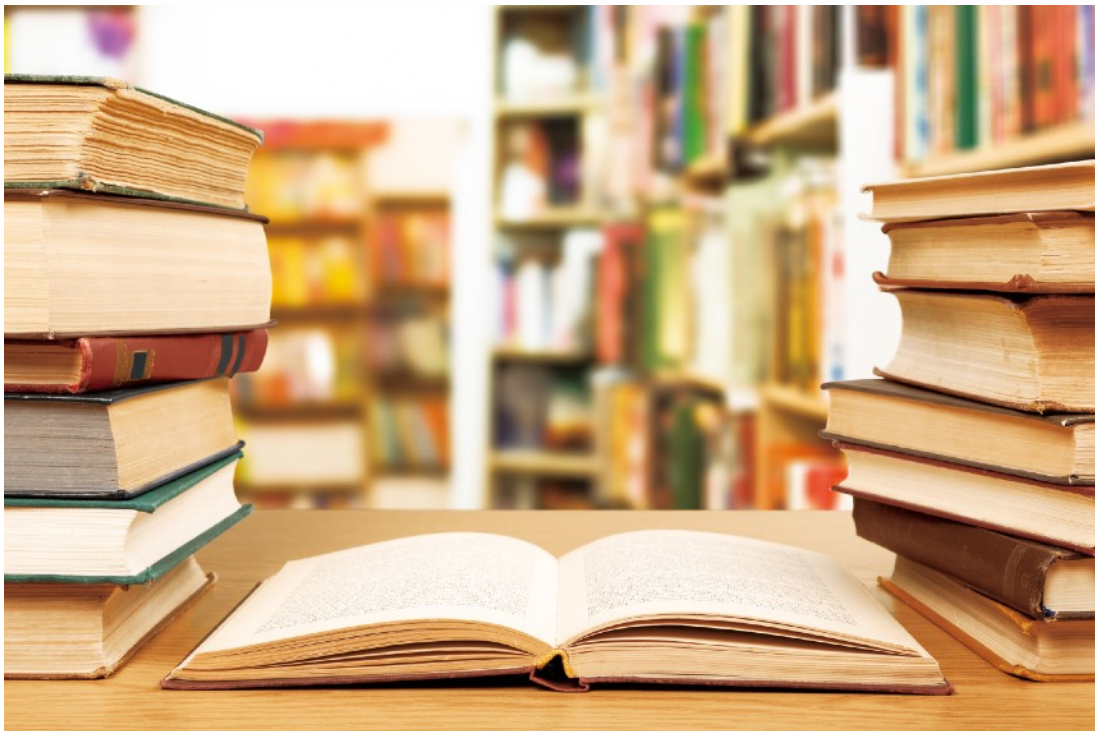


## 주요 내용

1. [제20대 대선 관련 개신교인 인식 조사]  
한국교회,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57%!
2. [특별 리포트]  
20대 대선 관련 최종 여론조사 종합 분석
3.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학생, 학부모, 교사가 듣고 싶은 말 TOP10
  - 2) 세계인의 4대 강국 국제 정책 평가(Gallup International)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한국교회,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57%!

내일이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다. 내일이 지나면 자신이 지지했던 안 했던 누군가는 20대 대통령으로 뽑혀있을 것이다. 그동안 불거졌던 온갖 진영 간의 갈등은 선거를 계기로 수그러들거나 혹은 잠복으로 들어간다.

교회 안에서도 선거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 심지어 기독교당을 만들어서(실제 존재한다)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온갖 주장들이 오고 갔다. 또 후보를 둘러싸고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터져 나왔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교회는 정치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할까?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인 나는 선거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넘버즈 134호」는 '대선 관련 개신교인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의 내용을 통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치적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 분석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전망해보는 코너도 마련하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넘버즈 134호의 내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는지, 한편으로 목회자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교회뿐 아니라 언론 등 사회의 주요 주체들에게 정치 관련 기독교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크(ARCC)연구소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 조사 지역	전 국
• 조사 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 표본 규모	총 1,000명
•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2015 인구총조사 개신교인구 기준으로 표본추출)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응답률	12.8%
• 조사 기간	2022년 2월 24일 ~ 2월 28일 (5일간)
• 조사 의뢰 기관	아크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수행 기관	(주) 피엠아이퍼블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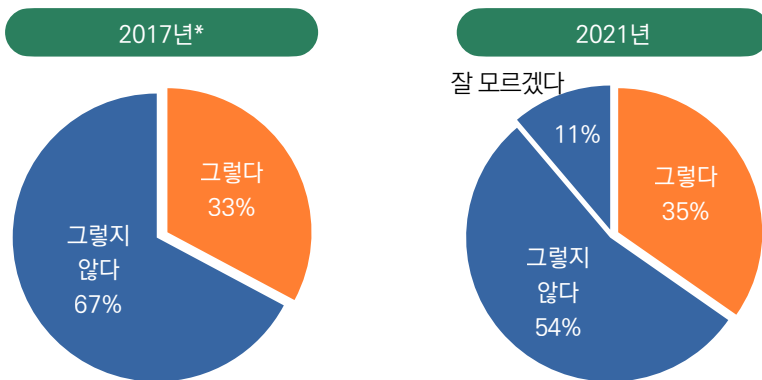
본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01

## 개신교인, 대선 투표시 종교와 정치 분리해서 생각한다!

- ▶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갇혀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올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인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 ▶ 개신교인의 35%만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한다고 응답했고, 65%는 '그렇지 않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개신교인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는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올 대선 투표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후보선택 고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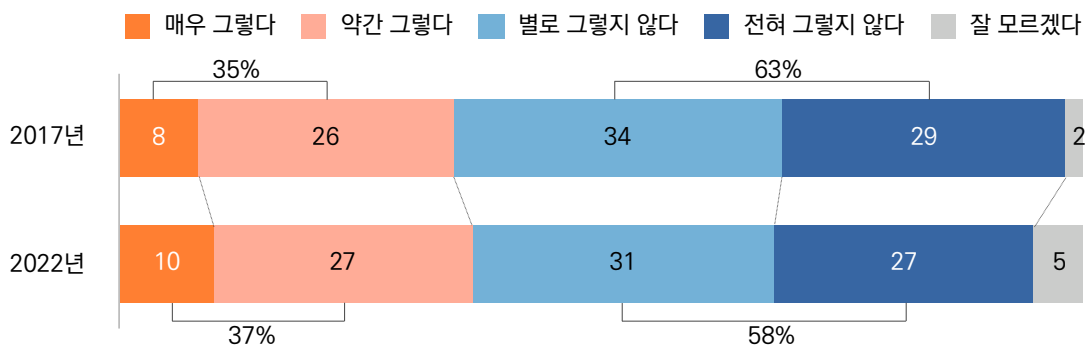


\*2017년 조사 : 한국기독교언론포럼, '19대 대선 관련 개신교인 인식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글로벌리서치, 2017.04.19.-21.)

### ◎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다' 37%에 불과!

- ▶ 그렇다면 개신교인의 정치적 참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개신교인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부터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개신교인 37%만이 기독교인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선택하지는 주장은 다수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다.

[그림]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다 (%)



\*2017년 조사 : 한국기독교언론포럼, '19대 대선 관련 개신교인 인식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글로벌리서치, 2017.04.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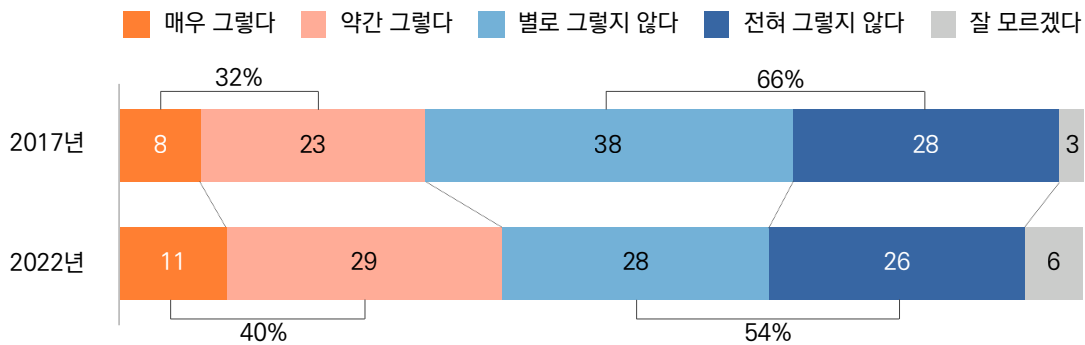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반올림으로 인한 rounding error임.

# 02

## 한국교회가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 공개 지지할 수 있다! 2017년 32% → 2022년 40%

- ▶ 이번에는 개신교인 개인 차원이 아닌 한국교회 차원에서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 질문했을 때, 40%가 '그렇다'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2017년의 32%보다 8%p라는 적지 않은 비율로 증가한 수치이다.
- ▶ 이 질문에 대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는 60세 이상, 교회 중직자층, 이념적으로 보수성향 응답자였다. 즉, 보수적 개신교인이 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참여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한국교회가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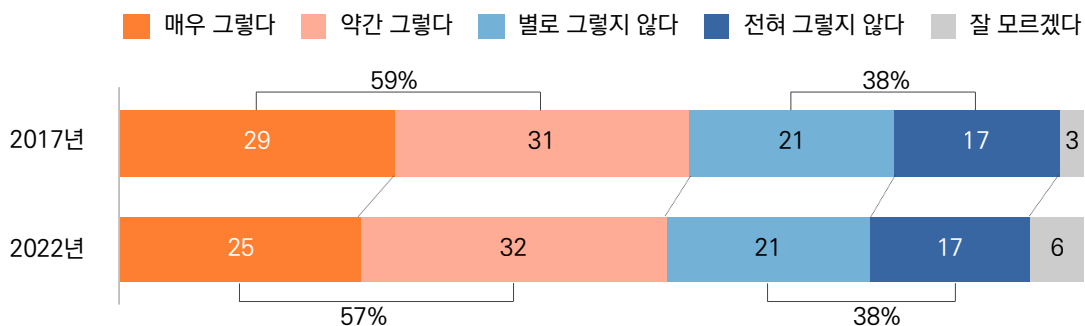


\*2017년 조사 : 한국기독교언론포럼, '19대 대선 관련 개신교인 인식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글로벌리서치, 2017.04.19.~21.)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반올림으로 인한 rounding error임.

### ◎ 개신교인이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정치적 역할, '감시자 역할' 57%

- ▶ 그렇다면 개신교인이 교회에 기대하는 정치적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감시자 역할(57%)이다.
- ▶ 2017년에도 감시자 역할을 찬성한 비율이 59%로 높았는데 앞서 '한국교회가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이 8%p 증가한 것과 연결지어 보면 개신교인들은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감시자뿐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서도 욕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서 본 '한국교회가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에 대한 찬성이 60세 이상 보수층에서 많았다는 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이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자신들의 정치적 욕구를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가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보다 높은 요구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한국교회는 선출된 당선자가 향후 대통령직을 잘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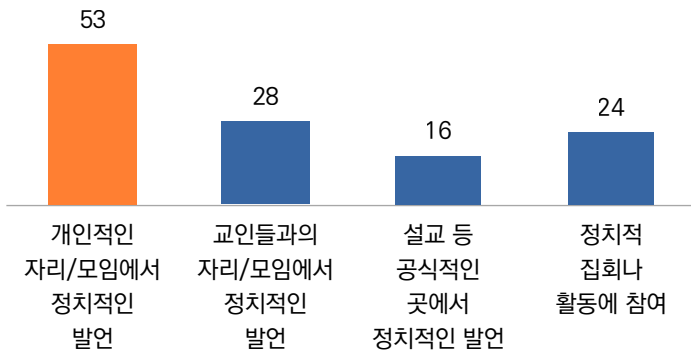
\*2017년 조사 : 한국기독교언론포럼, '19대 대선 관련 개신교인 인식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글로벌리서치, 2017.04.19.~21.)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반올림으로 인한 rounding error임.

# 03

## 목사의 정치적 발언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자제 원해’!

- ▶ 목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다는 것은 개신교인들이 목사에게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신교인들은 목사의 정치적 발언을 개인적인 자리/모임에서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비율도 53%밖에 되지 않아서 성도들은 목사의 정치적 언행을 다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자제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목사의 정치적 발언/참여 관련 항목별 허용 정도 (매우+약간 ‘허용할 수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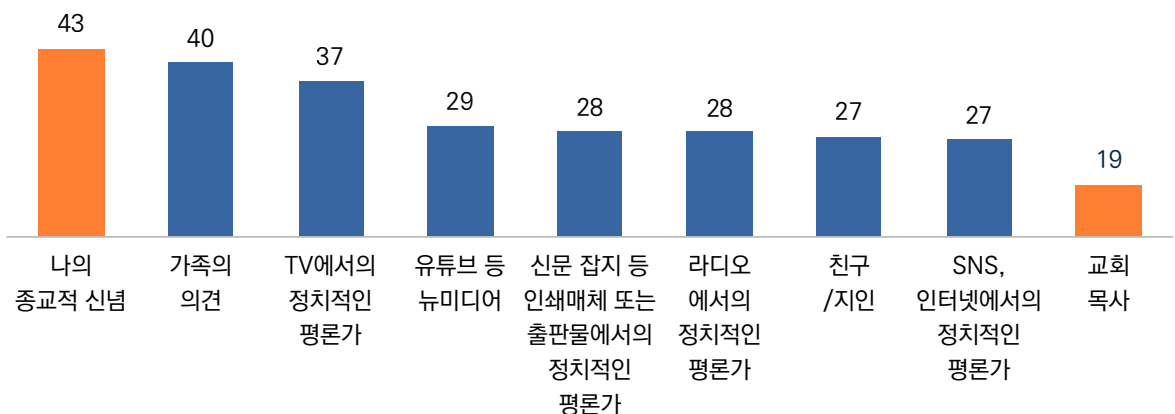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각 항목별 절대 평가)

# 04

## 개신교인의 대선 후보 결정시 가장 영향받는 요인, ‘나의 종교적 신념’ 43%!

- ▶ 개신교인이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어디서 영향을 받을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나의 종교적 신념’(43%)이었다.
- ▶ 주목할 점은 교회 목사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응답은 19%로, 제시된 9개 항목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낮았다. 대선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운동 기간에 목사가 설교 혹은 대중 집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지 혹은 반대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별 영향이 없다는 증거이다.
- ▶ 목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다라는 응답에서 두가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목사가 적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목사가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데, 그것은 교회 구성원의 정치적 색깔이 다양해서 자칫 정치적 발언을 하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정재영 외,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서울:IVP, 2021) 둘째는 이미 가족,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입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교회 목사의 영향력이 작다는 것이다.(위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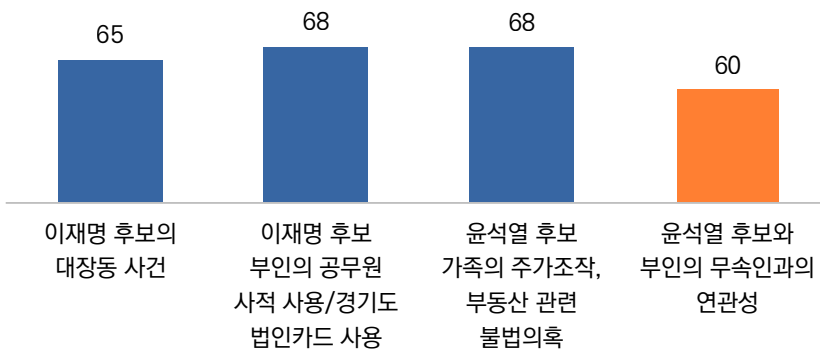
[그림] 대선 투표 후보 결정시 항목별 영향정도 (‘매우+약간 영향을 미친다’ 비율, 각 항목별 4점척도 질문임, %)



## ◎ 후보의 무속 연관성, 다른 네거티브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 적어!

- ▶ 이번 대선에서는 기호 1번과 2번 두 후보를 둘러싸고 많은 네거티브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양 후보에 관련된 네거티브 4가지를 선정해서 질문했는데, 네거티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이 6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 이 가운데 3가지 이슈는 67% 정도로 비슷했으며, 무속 관련 영향력도 60%로 높았지만 4가지 이슈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무속 관련해서는 넘버스 132호 참조)
- ▶ 특히 이번 선거에서 특정후보의 무속 연관성이 제기돼 개신교들에게 다른 네거티브 요인과 비교해 무속 연관성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설문인데 조사결과, 개신교인들은 후보 결정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고 말을 하였어도, 타 네거티브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속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후보의 자질 관련 네거티브 항목별 영향 정도 ('매우+약간 영향을 미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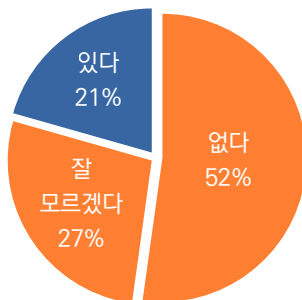
\* 각 항목별 4점 척도 질문임(절대 평가)

## 05

## 이번 대선에서 기독교적 가치 드러나는 후보 '없다/모르겠다' 79%!

- ▶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한다. 그런 평가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대선 후보 가운데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가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이 무려 79%나 되었다. .
- ▶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개신교인들이 바라는 기독교적 가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과연 기독교적 가치 측면에서 따져 보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기독교 정치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커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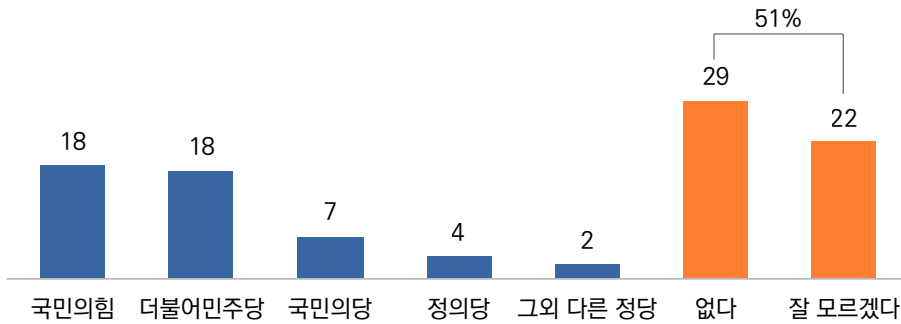
[그림]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 여부



## ◎ 기독교적 가치 드러나는 정당 ‘없다/모르겠다’ 51%

- ▶ 그렇다면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난 정당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질문의 내용이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정당이 있습니까?’가 아니고 ‘어느 정당이 기독교적 가치를 보다 잘 구현하고 있습니까?’라는 상대적 평가를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모르겠다’가 51%나 나온 것은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 ▶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정당으로 거대 양당을 응답한 비율은 각각 18%로 낮았다. 어느 정당도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 기독교적 가치를 보다 잘 구현하는 정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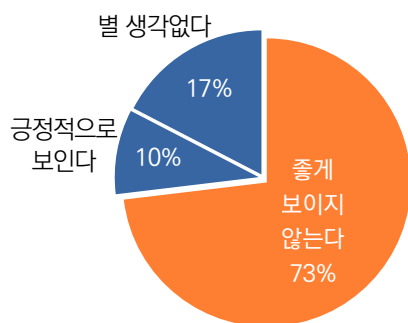


## 06

## 비개신교인 후보가 교회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것, ‘좋게 보이지 않는다’ 73%

- ▶ 선거철이면 개신교인도 아닌 후보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선거 운동, 홍보를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한다.
- ▶ 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예배 참석은 홍보 효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까지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선거철에 비개신교인 후보가 교회 방문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인상





서양의 지적 전통 가운데는 사회를 온갖 갈등이 부딪히는 현장으로 이해하는 전통이 있다. 사람마다 이익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한정된 자원 내에서는 서로의 이익과 가치를 둘러싸고 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곳이 사회이다. 개인 대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은 손쉽게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폭력으로 파국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을 어떻게 하면 덜 폭력적으로 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 중세 서양에서 결투를 신청해서 서로 칼싸움으로 승자를 결정하거나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총잡이들이 서로 마주 보고 누가 총을 먼저 뽑아 상대방을 쓰러뜨리는지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살아 남는 방식은 그나마 신사적인 갈등 해소 방법이었다.

폭력과 무력에 의해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평화적인 싸움이 선거이다. 땅속에서 꿈틀대던 마그마가 그 힘에 못이겨 지표를 뚫고 나오므로 땅 속의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민주사회는 우리 사회 내면에 흐르던 욕망과 욕망, 가치와 가치가 충돌한 그 에너지를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분출시켜서 갈등을 잠재워 평화를 회복시킨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집단들이 자기 의사를 내세우며 뛰어들어 치열하게 경쟁하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승자를 가려내서 사회 통합을 이루며 사회 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는 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며 사회를 평화롭게 통합시키는 의무인 것이다.

교회에서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분리주의적 입장과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부패한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개입주의적 입장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분리주의적 전통이 강했다. 일제 시대에서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교분리적 입장을 취했다. 해방 이후에도 러한 입장이 줄곧 주류를 형성했는데 1960 ~ 1980년대에는 진보적 기독교를 중심으로 두 번째 입장, 즉 교회는 군사 독재에 저항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자 국가가 나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성경

구절을 들먹이며 정교 분리를 외쳤고 보수 기독교도 이에 동조했다. 교회에서는 국가 권력도 하나님께서 우신 것이니 이에 순종해야 하며, 데모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보수 기독교도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며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절정은 많은 목사, 교인들이 참석한 전광훈 목사의 태극기 집회였다.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다. 정교분리라는 오래된 전통적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번 대선에서는 교회가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라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정치적 개입 의사를 밝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5쪽) 보수 기독교가 정치 불가 원칙에서 정치 참여로 나선 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불거진 차별금지법 논란의 영향이 크다. 반동성애 기치를 올리는 보수 기독교에게는 차별금지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치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 보수 기독교든 진보 기독교든 교회가 정치와 무관하게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입장의 일치는 바람직스럽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현실 정치가 기독교적 가치에 반할 경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선거, 정치에서 추구해야 할 기독교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데 앞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땅에서 이를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 20대 대선 관련 최종 여론조사 종합 분석

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대별되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다. 이번 개신교인 조사에서도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가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이 대부분(79%)을 차지할 정도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선거판을 보기가 어려웠다.

여론조사와 관련 현행법은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6일 전부터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의 경우 지난 3월 3일부터 해당된다. 그러나 3월 3일 이후에도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전체적인 판세를 파악하기 위해 2월 말에서 3월 2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하여 언론에 발표한 조사결과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단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공표 금지전 최종 여론조사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일화의 실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후보단일화를 가정으로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 Step1) 여심위에 등록된 2월 말부터 3월 2일까지 조사된 선거여론조사 정리
- Step2) 이 중 전화조사 방법을 사용한 13개 조사 정리
- Step3) 이 중 후보 단일화를 가정해서 가상대결 설문을 한 6개 조사 정리
- Step4) 이 중 타 조사결과와 달리 1,2위 후보 간 차이가 10%p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진 조사 결과 1개를 제외하고 최종 5개 조사 결과 정리

## 1. 5개 전화조사 결과 정리(윤석열 단일화시 질문)

3월 3일에 발표된 전화조사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들 가운데 후보 단일화 질문을 넣은 5개 조사 결과들을 모두 합해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윤석열 46.1%, 이재명 42.1%, 심상정 3.8%, 기타후보 1.1%, 무응답 7.0%로 나타났다. 이때는 안철수 후보 사퇴 직전 시점이어서 안철수 지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발표일	언론사	조사기관	조사기간	윤석열+안철수 → 윤석열로 단일화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기타	없다/ 무응답	계
3월3일	문화일보*	엠브레인	3/1~3/2	45.0	45.9	2.0	-	7.1	100.0
3월3일	중앙일보	엠브레인	2/28~3/2	41.5	47.4	3.9	0.9	6.3	100.0
3월3일	머니투데이	한국갤럽	3/1~3/2	42.2	42.5	7.3	0.4	7.6	100.0
3월3일	한국경제	입소스	3/1~3/2	42.8	48.9	2.5	3.2	2.6	100.0
3월3일	동아일보	리서치 앤리서치	3/1~3/2	39.0	45.5	3.3	0.8	11.4	100.0
5개 조사 평균				42.1	46.1	3.8	1.1	7.0	100.0

\*문화일보(엠브레인) 조사에서 단일화 질문시 이재명, 윤석열, 기타후보로 질문하였음. 여기서는 편의상 기타후보 응답률 2.0%를 심상정 지지도에 포함시킨.

\*\*합이 100이 안되는 경우는 rounding error임.

\*\*\*각 조사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2. 한국 갤럽의 예상득표율 예측

한국갤럽은 3월 2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별 예상 득표율을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윤석열 43.4%, 이재명 40.8%, 안철수 10.9%, 심상정 3.4%, 기타 1.4%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안철수 후보 사퇴 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안철수 후보가 포함되었다.

✦ 한국갤럽 예측(3월 2일)

조사기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기타	계
2/28~3/2	40.8	43.4	10.9	3.4	1.4	100.0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데일리언 오피니언 제 485호, 2022.03.04.

\*\*전국 투표율 76.7%를 가정하여 성/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합이 100이 안되는 경우는 rounding error임

## 3. 윤석열 - 안철수 단일화 효과

갤럽의 예측치에서 안철수 지지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5개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안철수 지지층의 이동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안철수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로 35.9%, 이재명 후보로 28.4%로 각각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철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는 않아 단일화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없다/무응답’은 23.7%였는데, 이 23.7%는 안후보에게 실망감을 느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 안철수 지지층의 이동 분포(5개 조사 통합) (단위 : %)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기타	없다/무응답	계
안철수 지지층	28.4	35.9	8.3	3.6	23.7	100.0
안철수 지지층 (무응답제외)	37.3	47.1	10.9	4.8		100.0

\*이 표는 10p의 5개 조사 결과 중 안철수 지지층 이동 분포를 통합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합이 100이 안되는 경우는 rounding error임.

## 4. 종합 전망

앞에서 5개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고, 한편으로 갤럽 예측치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5개 전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예상 득표율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기타	없다/무응답	계
무응답포함	42.1	46.1	3.8	1.1	7.0	100.0
예상 (무응답제외)	45.3	49.5	4.1	1.2		100.0

\*5개 조사 통합데이터는 단순 합계 후 평균치를 낸 것으로 전국 투표율, 연령별 투표율을 감안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것.

\*\*합이 100이 안되는 경우는 rounding error임.

2) 한국갤럽의 예상득표율 보완 (안철수 지지층 배분)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기타	계
기존 예측	40.8	43.4	10.9	3.4	1.4	100.0
안철수 지지층 배분 후*	44.9	48.5		4.6	2.0	100.0

\*앞에서 분석한 안철수 지지층의 이동분포를 감안하여 안철수 지지도 10.9%를 각 후보별로 배분함

➔ 이번 대선에서 최종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공교롭게도 5개 전화면접조사 결과와 갤럽 예측치가 큰 차이 없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3.6%p ~ 4.2%p’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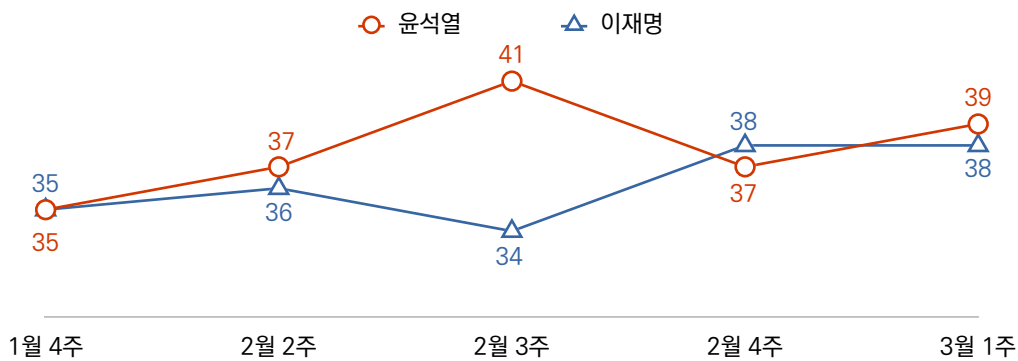
### 5. 대선 예측을 위한 또 하나의 고려 변수 - 지지도 곡선의 기울기

이번 대선 여론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단 두 곳뿐이다. 한국갤럽과 NBS(주요조사기관 4곳 연합)인데 두 기관의 마지막 지지도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갤럽은 3월 마지막 한 주간 이재명 후보 정체(38%→38%), 윤석열 후보 약간 상승세(37%→39%)를 보였으며, NBS는 동일 기간내 이재명 후보 상승세(37%→40%), 윤석열 후보 미세한 상승(39%→4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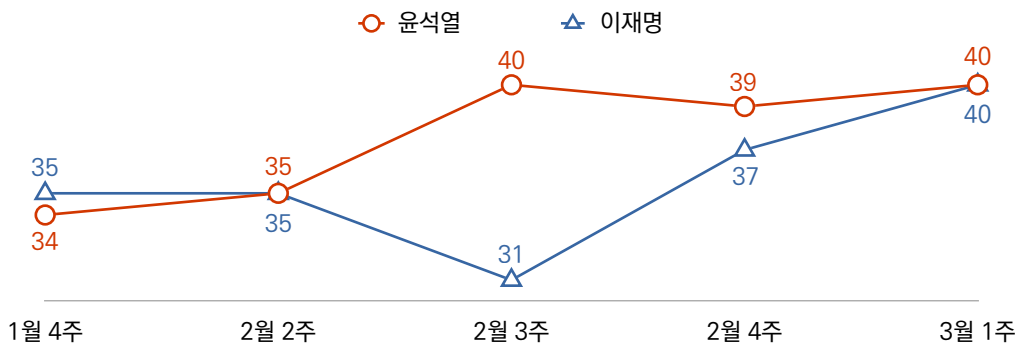
두 기관의 2월 4주와 3월 1주 2개의 데이터를 합산, 평균하면 윤석열 38% → 39.5%, 이재명 37.5% → 39%로 각각 1.5%p 상승했다. 이는 두 후보의 상승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후보간 지지도 추이 흐름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막판 일주일 간 누가 더 여론을 주도하면서 치고나가는가에 따라 최종 결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보인다.

[그림1] 한국갤럽의 후보 지지도 추이 (윤석열 vs 이재명)



[그림2] NBS의 후보 지지도 추이 (윤석열 vs 이재명)



\*3월 1주 조사는 재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 데이터보다 전체적으로 지지도 비율이 증가됨에 유의할 것.

### 6. 고려 사항

1) 위의 예측은 두 가지 모두 후보단일화 직전에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했기 때문에 응답자가 후보단일화를 가정으로 응답한 경우와 실제 후보단일화가 된 후 응답하는 것은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특히 안철수 사퇴이후 지지자들의 불만으로 역풍을 맞아 지지도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여론조사로 측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2) 또한 정확한 투표날의 출구조사가 아닌 표본오차가 허용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것도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조사한 데이터라서 마지막 일주일의 판세 변동까지는 읽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1.[학생, 학부모, 교사가 듣고 싶은 말 TOP10]
- 2.[세계인의 4대 강국 국제 정책 평가]



## 서울시 초·중·고 학생,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위, “우리 딸/아들 정말 잘했어”

- ▶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소통의 장’(학생이 듣고 싶은 말, 선생님이 듣고 싶은 말, 학부모가 듣고 싶은 말로 구분) 응답빈도 순으로 대상별 TOP 10을 선정하였다.
- ▶ 학생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우리 딸/아들, 정말 잘 했어”, “항상 사랑한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가 순서대로 1~3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격려와 애정의 말이 상위권이었다.
- ▶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 역시 “참 잘 했어요”,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순으로,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과 비슷한 답변이었다.
- ▶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였고, “우리 같이 놀자”가 그 뒤를 이었는데 코로나로 친구들과 놀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반영됐고, 관계적 갈급함을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표] ‘학생’이 듣고 싶은 말 TOP 10

대상 순위	1.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말	2.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	3.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1	우리 딸/아들, 정말 잘 했어	참 잘 했어요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2	항상 사랑한다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우리 같이 놀자
3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너 정말 잘한다
4	오늘도 수고 많았어	정말 수고 많았어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5	괜찮아 다 잘 될거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너는 나의 좋은 친구야
6	태어나줘서 고마워	앞으로 힘내자 파이팅	넌 정말 대단해
7	넌 잘 할 수 있을 거야	항상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워	괜찮아, 잘했어
8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넌 정말 성실한 학생이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9	넌 최고의 선물이야	너는 참 착하구나	우리같이 하자
10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시험 100점!	나랑 친하게 지내자

\*자료 출처 :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소통·배려·성장 캠페인 공모전 결과 “너에게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 2022.02.23., (관내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총 2,000명)

## ◎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는... “엄마/아빠 자녀라 너무 행복해”

- ▶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을 공모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는 “엄마/아빠 자녀라 너무 행복해”가 뽑혔다.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지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 이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길 것 같다는 이유였다. 그 다음으로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아빠가 제일 좋아” 순이었다.

[표] ‘부모님’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TOP 10

순위	대상	부모님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1		엄마/아빠 자녀라 너무 행복해
2		사랑해요
3		고마워요
4		엄마/아빠가 제일 좋아
5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6		내 엄마/아빠라서 너무 좋아
7		제가 잘할 수 있어요
8		엄마/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9		엄마/아빠가 있어 든든해
10		엄마/아빠가 최고야

\*자료 출처 :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소통-배려-성장 캠페인 공모전 결과 “너에게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 마디”, 2022.02.23., (관내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총 2,000명)

## ◎ 선생님이 학생에게 듣고 싶은 말, ‘감사’와 ‘수업에 대한 지지’의 말!

- ▶ 선생님이 학생에 듣고 싶은 말은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가 1위로 응답됐다. 다음으로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가 각각 2,3위였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교사로서 자신감이 생기고 수업을 더 잘 준비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다.
- ▶ 그밖에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워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등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선생님’이 학생에게 듣고 싶은 말 TOP 10

순위	대상	선생님이 학생에게 듣고 싶은 말
1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2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어요
3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
4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나요
5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워요
6		선생님 보고 싶어요
7		선생님 사랑합니다
8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9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0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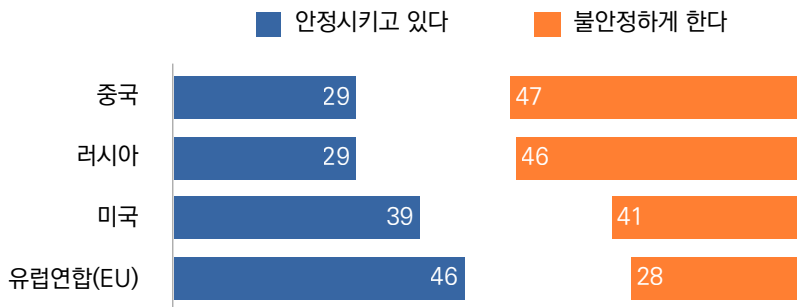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소통-배려-성장 캠페인 공모전 결과 “너에게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 마디”, 2022.02.23., (관내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총 2,000명)



## 45개국 국민 2명 중 1명 가까이 “러시아·중국의 국제 정책은 세계를 불안정하게 해!”

- ▶ 국제 조사네트워크 기구인 갤럽 인터내셔널에서 4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4대 강국 국제 정책 인식보고서’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EU) 각각의 국제 정책이 세계를 안정시키고 있는지, 불안정하게 한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세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답변이 각각 47%, 46%로 50%에 육박했고, ‘세계를 안정시킨다’는 의견은 29%에 그쳤다.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1년 말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운 고조 이전에도 러시아의 국제 정책에 대한 세계인의 불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 유럽연합(EU)은 4대 강국 중 유일하게 ‘안정시키고 있다’는 답변이 절반에 가까웠고(46%), 4년 연속 가장 우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안정시키고 있다 39%’와 ‘불안정하게 한다 41%’는 응답이 팽팽히 맞섰다.

[그림] ‘\_\_\_의 국제 정책은 세계를 안정시키고 있다 혹은 불안정하게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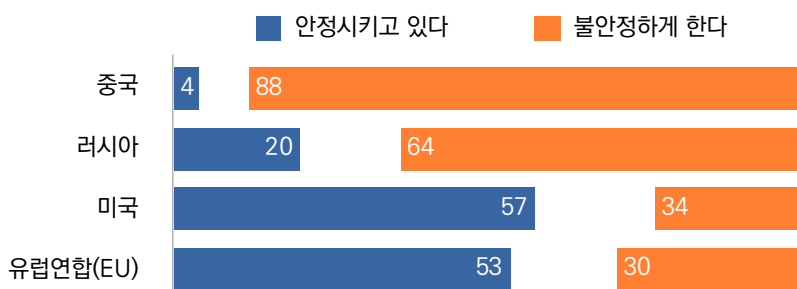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2022.02.24. 발표. <갤럽인터내셔널 리포트, 4대 강국 국제 정책 인식, (세계 45개국, 성인 총 42,060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주제별 참여국 상이)), 2021년 10~12월, 한국조사: 한국갤럽, 2021년 11월 5~28일, 전국 성인 1,500명 대상, 면접조사)

### ◎ 한국인, 중국 불신 45개국 중 최고! 한국인의 러시아 불신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

- ▶ 미국, 유럽연합(EU)의 국제 정책이 ‘세계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답변이 한국 조사에서는 각각 57%, 53%로 나왔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45개국 평균(39%, 46%)과 7~18%p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 ▶ 중국에 대한 불신, 즉 ‘중국의 국제정책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응답은 88%로 45개 조사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정시키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4%)과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 ‘안정시키고 있다’ 20%, ‘불안정하게 한다’ 64%를 나타냈다. 러시아 역시 ‘불안정하게 한다’는 응답에 대해 45개 평균(46%)보다 부정적 평가가 18%p 높게 나타났다.

[그림] ‘\_\_\_의 국제 정책은 세계를 안정시키고 있다 혹은 불안정하게 한다’ (한국인 대상, %)



\*자료 출처: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2022.02.24. 발표. <갤럽인터내셔널 리포트, 4대 강국 국제 정책 인식, (세계 45개국, 성인 총 42,060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주제별 참여국 상이)), 2021년 10~12월, 한국조사: 한국갤럽, 2021년 11월 5~28일, 전국 성인 1,500명 대상, 면접조사)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85호\(2022년 3월 1주\) - 안철수 사퇴 전 대선 후보 지지도 등](#)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67호\(2022년 3월 1주\) - 대선후보 지지도 등](#)

[깜깜이 첫날 尹·安 단일화... "파괴력은 2030이 가장 크다"](#)

중앙일보\_2022.03.04.

◎ 사회 일반

[10년 전보다 15배 늘어난 산불...약순환되는 지구의 '경고'](#)

JTBC뉴스\_2022.03.03.

[국민 68% "코로나19로 소득 줄었다"...월 평균 124만원 감소](#)

시사저널\_2022.03.03.

['문송' 넘어 '문망'...인문학 박사 37%, 연봉 2000만원도 못 번다](#)

중앙일보\_2022.03.04.

['술이 술을 부르네'...작년 한국인 월평균 8.5일 음주](#)

연합뉴스\_2022.03.06.

[노인빈곤율 38.9%로 하락...첫 30%대 기록은 "기초연금 효과"](#)

연합뉴스\_2022.03.08.

[별난리서치: 더치페이 인식조사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한국리서치\_2022.02.23.

◎ 경제

[한국, 코로나19 경제성적 승자...OECD 19개국 중 3위](#)

연합뉴스\_2022.03.04.

[70년 전 '국민소득 67달러' 한국의 반전... "이제 4만달러 간다"](#)

한국경제\_2022.03.03.

[OECD 1월 물가 상승률 31년 만에 최고...한국, 38개국 중 29위](#)

연합뉴스\_2022.03.07.

[주식거래 계좌 6천만개 넘었다...5천만개 돌파 6개월만](#)

연합뉴스\_2022.02.21.

[그룹 총수들은 평균보다 오래 살까?...통계 봤더니](#)

시사저널\_2022.03.03.

◎ 청년

["청년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장은 근무시간 안 지키는 곳"](#)

연합뉴스\_2022.03.06.

[MZ세대 미술품공동구매 큰손... "1천만원 이상 구입 40%가 20·30"](#)

연합뉴스\_2022.03.07.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 종교

[교회 안의 다섯가지 타입의 사람들](#)

크리스찬타임스\_2022.03.02.

[‘디지털 박해’가 시작됐다…중국, 온라인교회 금지령](#)

국민일보\_2022.03.04.

[여성 안수 않는 교단 3곳 “필요성엔 공감”](#)

국민일보\_2022.03.08.

◎ 기획기사 1 : [당신에게 기후위기란] (연합뉴스)

① ['위기의 북극곰'과 한국의 거리감](#) \_2022.03.05.

② [거대한 흐름 속 "작은 실천 의미 있나요"](#) \_2022.03.06.

③ ['실천하는 시민' 어떻게 만들까\(끝\)](#) \_2022.03.06.

◎ 기획기사 2 : [우리도 부모입니다-장애인 25인의 양육 분투기]

① [편견에 맞서다 : 보지 못하고 견지 못해도... 우리는 아이를 키웁니다](#) \_2022.02.14.

① [편견에 맞서다 : 못 보고 못 걸어도... “출산·양육은 벅찬 행복”](#) \_2022.02.15.

② [육아보다 힘든 차별 : “결혼 꼭 해야겠니...아이는 어떻게 키우려고”](#) \_2022.02.16.

③ [힘난한 자녀의 사춘기 : 자녀 방황하면 ‘나 때문인가...’ 장애 부모의 눈물](#) \_2022.02.17.

④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것 : “그런 부모 밑이니 이 모양이지” 가장 아팠던 한마디](#) \_2022.02.18.

⑤ [또 다른 장벽, 가난 : “50만원에 꿈 포기한 딸” 장애로, 가난은 대물림된다](#) \_2022.02.22.

⑥ [‘아이엠 샘’은 현실에서 가능할까 : 온 마을이 조금씩 도우면...](#) \_2022.02.23.

⑦ [편견 바로 잡으려면 : “아빠 되고 싶어요” 22살 장애인 준형씨가 꿈꾸는 세상](#) \_2022.02.24.

[에필로그: 청년 장애인의 사랑 : 결혼 단념한 청년 장애인 커플](#) \_2022.02.25.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협회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아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자인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중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신규 후원 |

둔산성광교회(이우천 목사), 스페이스허브, (주)삼신테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mailto: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